

# 첨단산업 초격차 위한 국제표준 선점 순항 중

- '24년 인공지능(AI), 디스플레이 등 12개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제안 2배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중욱, 이하 국표원)은 9월 24일(화) 국내 산·학·연 표준 리더들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을 개최하고 지난 5월 포럼을 통해 민·관이 공동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주요 이행 성과를 점검하였다.

- \* ① 반도체·AI 등 12개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국가 표준 적시 개발, ② 국제협력 강화, ③ 산업계 표준화 활동 확대, ④ 표준화 기반 조성(표준전문인력 양성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전략을 통해 국가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24년 1월부터 8월까지 인공지능, 디스플레이 등 12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기술을 반영한 국제표준을 예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0건을 개발·제안하였다.

\* 12개 첨단산업 분야 연도별 국제표준 제안(건) : 23건(22년) → 23건('23년) → 50건(24.1~8월)

\*\* 반도체(4건), 디스플레이(2건), 이차전지(1건), 인공지능(3건), 미래차(11건), 미래선박(9건), 첨단제조(3건), 차세대원자력(3건), 청정에너지(6건), 핵심소재(8건)

특히 국내·외 기업들이 집중 개발하고 있는 폴더블폰, 폴더블폰(멀티폴딩)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의 성능평가를 위한 국제표준 2건을 제안하여 우수한 우리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핸드폰 등 온디바이스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AI 시스템 경량화 지침 등 AI 분야 기술 선도를 위한 국제표준도 3건 제안하였다.

이러한 국제표준 제안 활동 확대를 통해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JTC3) 의장 수입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는 한국인 임원이 '24.8월 274명으로 작년(263명) 대비 11명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진중욱 국표원장은 “지난 5월 수립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노력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를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선점을 민·관 원팀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표준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종섭 (043-870-5340)
	표준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이보하 (043-870-5341)

**□ 추진 배경 및 경과**

- 美, 中 등 주요 국가들은 국가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AI 등 첨단 산업 분야 신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자원으로 표준을 활용

\* (미국) 핵심·신흥 기술 국가표준전략('23.5월), (중국) 신산업 표준화방안('23.8월) (EU) EU 표준화전략('22.2월), (일본) 표준가속모델('23.6월), (캐나다) AI 표준화 전략('23.1월) 등

- 이에 산업 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24.5) 등 산업정책을 반영하여 민관 합동으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을 수립·발표('24.5.21)

\* 12개 분야 표준 포럼을 중심으로 표준 수요 발굴(전문가 1,000여명 참여, 200일간 논의)

**□ 전략 주요 내용**

- 12대 첨단산업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을 적기 개발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속적인 표준화를 위한 4대 추진전략 마련

\* (12개 첨단산업) ①반도체, ②디스플레이, ③이차전지, ④인공지능, ⑤미래차, ⑥미래 선박, ⑦로봇, ⑧첨단제조, ⑨양자, ⑩핵심소재, ⑪원자력, ⑫청정에너지

① (표준 적시 개발) 국제표준 250여건 개발·선점, KS 400여건 개발·보급(~'30)

② (국제협력 강화) 美獨日·中 표준협력포럼 개최, 국제기구 임원수입 확대(('23)263→('30)300)

③ (산업계 참여 확대) 표준심의회 기업위원 확대(('23)31%→('25)50%), 기업 경영진 교육

④ (기반 조성) 첨단산업 표준투자 집중(70%↑), R&D-표준 연계 강화, 표준인력 양성

**□ 이행 점검**

- 12개 분야별 표준 포럼을 통해 표준 개발 등을 이행하고,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을 통해 이행 성과 점검 및 홍보 추진

## 참고 2

##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

### □ 리더십 포럼 기능

- 산업분야별 표준정책 검토·조율, 첨단산업 국가표준전략 수립·검토, 표준인프라(인력양성 등) 확산 추진, 표준정책 홍보 등

### □ 포럼 조직



### □ 리더십포럼 위원현황

- 산학연 리더 16명으로 구성: 공동의장(2명), 산업계(4명), 학계(3명), 표준전문가(3명), 연구소(2명), 언론(1명), 특허(1명)

순번	성명	소속	비고
1	임채민 고문	법무법인(유) 광장	공동의장
2	조성환 회장	ISO 회장	
3	신정호 대표	SK 시그넷(주)	산업계
4	장재호 대표	(주)에프알티	
5	송영기 대표	(주)스프링클라우드	
6	김태영 대표	테라릭스(주)	
7	송정희 부회장	한국공학한림원	학계
8	최정일 교수	송실대	
9	김영일 교수	아주대	
10	백만기 변리사	김&장 법률사무소	특허
11	김영수 대표	조선비즈	언론
12	최갑홍 교수	성균관대	표준전문가
13	이경일 대표	솔트룩스	
14	이희진 교수	연세대	
15	안완기 회장	한국생산성본부	연구소
16	고준성 선임	산업연구원	

(정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간사기관) 한국표준협회 회장